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문신학 원전산업정책과장(2110-5481), 문상민 서기관(4879), 김건혁 사무관(4880)
박성택 전력산업과장(2110-4897), 양광석 팀장(4900)

전력수급 비상대책본부 가동

- 산업부,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후속조치 시행 -

◈ 금일 원안위는 신고리 1~2, 신월성 1~2호기 "제어케이블*"의 **시험성적서 위조**를 확인하고, **케이블 교체** 등 조치사항 발표

* 원전 사고시 원자로 냉각계통(살수펌프, 수소감시설비 등)에 작동신호 전달

⇒ 가동중인 **신고리 2호기** 및 **신월성 1호기**는 **"정지" 후 케이블 교체**

* 현재 계획예방정비 중인 신고리1호기는 정비 연장하여 교체

◈ 산업부는 원안위 결정에 따라 안전최우선의 원칙하에 **조속히 해당 기기를 교체**하고, 유사사례 추가조사 등 철저한 후속조치 시행

◈ 아울러 케이블 교체를 위한 **3개 운영원전(신고리 1·2, 신월성 1)의 가동정지 기간(4개월 내외)** 중 **전력수급에 만전**을 기할 계획

1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개요 및 원안위 조치

※ 상세내용은 금일 원안위 보도자료 참조

가. 사건 경위

□ 원안위는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신문고에 접수된 "제어케이블*" 검증서류위조 제보(4월말) 조사과정에서 **신고리 1~2호기, 신월성 1~2호기**에 **시험성적서가 위조된**('08년초 위조 추정) **제어케이블 설치** 확인

* 원전사고시 원자로 냉각계통(살수펌프, 수소감시설비 등)에 작동신호 전달

□ 위조내용은 국내시험기관이 해외시험기관에 의뢰한 시험결과 자료 중 **불합격 부분**을 임의로 **삭제**한 것임

* (원본) 12개의 케이블 샘플 중 3개만 합격 ⇒ (위조) 합격한 2개, 불합격한 1개 결과만 제출

나. 원전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

□ 금번 서류가 위조된 기기(제어케이블)는 원전사고 발생시 원자로 냉각을 위한 안전계통*에 제어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,

* 안전주입탱크, 안전주입펌프, 원자로건물 살수펌프, 수소감시설비 등

○ 원안위는 **신고리 1~2** 및 **신월성 1~2호기**의 경우, 안전성 분석 결과 **"원전사고 발생시에 성능이 확보될 수 없다"**고 판단

다. 원안위 조치

□ 원안위는 **신고리 1~2** 및 **신월성 1~2호기**는 **"케이블 교체"** 조치

○ (신고리 1) 현재 진행중인 **계획예방정비('13.4.8~)를 연장하여 교체**

○ (신고리 2, 신월성 1) 현재 가동중인 **원자로 정지 후 교체**

* 당초 계획예방정비 일정 : 신고리 2호기는 '13.5.31~, 신월성 1호기는 '13.6.12~

○ (신월성 2) 현재 운영허가 심사중으로, **운영허가 전까지 교체**

□ 원안위는 올해 초부터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, 이번과 같은 유사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조사할 계획

2 금번 사건에 대한 산업부의 후속조치

가. 케이블 교체

□ 산업부는 원안위의 "케이블 교체 결정"에 따라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상기 4개 원전의 케이블을 조속히 교체할 계획

○ 특히 신규기기 제작 → 기기 검증 → 교체의 全 과정에서 **원자력 규제기관의 안전규정 및 지침**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

□ 기기 교체 소요기간은 규제기관의 확인 기간 등에 따라 유동적이나, **4개월 내외**가 소요될 전망

* (잠정일정) 신규기기 제작(약 2개월) → 기기 교체(약 1개월) → 성능 시험(약 1개월)

□ 기기 교체의 모든 과정은 **투명하게 공개**할 계획이며, **對국민·지역주민 소통**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

* 필요시 주민 설명회. 교체작업 및 성능확인 참관 등 각종 소통활동 추진

나. 검찰 수사요청 및 책임자 문책

□ 금번 사건의 주요 관계기관은 케이블 공급업체, 국내시험기관, 한국전력기술(주), 한국수력원자력(주) 등임

* 한전기술은 시험성적서의 1차적 검수기관, 한수원은 간접적 검수기관

○ 서류위조에 책임이 있는 기관과 관련자에 대해서는 **형사고발, 손해배상** 등 민·형사상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임

* 기기 납품업체(검증서 의뢰자), 국내시험기관, 검수기관간 비위행위 등도 수사 의뢰

□ 1차적 검수책임자인 **한전기술**과 포괄적 관리책임자인 **한수원**에 대해서는 자체감사와 외부기관 감사 등 철저한 조사 후,

○ **엄정한 책임자 문책**을 통해 유사사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

다. 재발방지대책 수립

□ 산업부가 지난 1.8일 발표한 "원전산업 혁신방안*"의 일환으로 **국제전문기관**의 **"국내 全원전 특별점검"**이 금주부터 시작(5.27~7.26)됨

* (원전산업 혁신방안 골자) ①한수원 쇄신 및 안전문화 확산, ②원전 품질관리체계 강화, ③안전 최우선의 원전 정비·운영, ④주민참여 등 투명성 강화 등 4개 분야

○ 산업부는 상기 **국제기관 특별점검 내용에 금번 위조사건을 포함**할 계획이며, 이를 토대로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계획

< 국제 전문기관 특별점검 개요 >

· **점검기관** : TÜV SÜD (독일 원전 안전성 점검 전문기관)
· **일정** : 13.5.27 ~ 7.26 (9주간, 본사→한울(울진)→월성→고리→한빛(영광))
· **내용** : ①주요설비 신뢰성, ②정비·엔지니어링 관리체계, ③품질보증 관리체계

3 전력 수급대책

가. 수급전망

□ 당초에도 금년 여름 전력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나, 부품 교체 기간 동안 3개 원전이 정지되어 **유례없는 전력난**이 우려됨

< 금년여름 전력수급 전망('13.8.2주기준) > (단위 만kW)

구분	'12년 여름	'13년 여름	
		당초	변경
공급능력	7,708	8,000 내외	7,700 내외
최대수요	7,727*	7,900 내외	동일
예비전력	△19	100 내외	△200 내외

* 대책시행전 수요로, 실제기록된 수요는 7,429만kW, 예비력은 279만kW

○ 당장 6월부터 공급 차질로 수급 비상상황이 발령될 가능성이 높고, **8월에는 매우 심각**할 것으로 예상됨

나. 대책

□ 단기적으로 공급을 대폭 보완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**상당한 수요감축**을 통해 수급위기를 헤쳐 나가야할 것으로 예상

○ 장기 정비중인 원전의 차질없는 재가동에 노력하고, 건설중인 발전기들 준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

○ 산업체를 중심으로 **휴가분산, 조업조정** 등을 강력히 시행하고, **에너지 과소비 단속**도 강화할 계획

□ 구체적인 대책은 **5.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**를 통해 확정 발표하겠음

□ 한편, 산업부는 금일부터 9월말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, 산업부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**"전력수급비상대책본부"**를 설치하는 등 전력수급비상체계를 **가동하였음**

< 전력수급비상대책본부 (본부장 : 제2차관) >

◈ 전력수급반(에너지자원실장) : 전력산업과, 에너지절약정책과, 가스산업과, 에너지관리과, 한국전력, 전력거래소, 발전자회사, 에너지관리공단, 전기안전공사

◈ 원전점검반(원전산업정책관) : 원전산업정책과, 한수원, 한전기술 등

※ 각 전력유관기관도 자체 비상대책반 구성,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

OPEN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문신학 과장(☎ 02-2110-548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